

믿고 기다린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같이 쪼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미닭은 알을 품고 약 21일 동안 참고 기다린다. 그리고 알 속에서 병아리가 먼저 쪼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힘차게 알을 깨어 병아리가 나오도록 도와 준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세상밖으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린다.

이 고사성어는 곧잘 어린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배울 마음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부모는 보통 어린이가 배울 마음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열린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흔히 부모와 교사는 가르쳤는데 어린이는 배우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린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장사에서는 파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다. 파는 사람이 사과 10개를 팔면 사는 사람은 사과 10개를 산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10개를 가르치면 5개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10개 이상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평균적인 사람은 10개를 가르치면 3~4개를 배운다고 한다. 왜 그런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다른 현상이기 때문이다.

부모나 교사는 온 몸을 바쳐 가르친다. 그래서 흔히 가르치는 것을 예술(art)에 비유하여 말한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science)적으로 규명해

야하는 현상이다. 앞으로 교육은 티칭(teaching)보다 런닝(learning)에 대해 더 많은 과학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를 규명하는 과학분야가 학습과학기술(learning science and technology)이고, 이를 좀더 넓게 규명하는 과학분야가 인지과학기술(cognitive science and technology)이고, 아주 좁게 말하면 두뇌과학기술(brain science and technology)분야이다.

부모나 교사는 먼저 가르치기 전에 어린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할 때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것을 보통 동기부여(motivation)라고 한다. 어린이의 동기를 잘 살피서 그 동기가 극대화 되도록 충분히 도와 준 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긴 준비시간을 거친 후 짧은 시간에 학습을 해도 학습의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가장 좋은 교육은 어린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 스스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면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교과서가 있고,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고, 소설이나 다른 책을 보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

소설책은 지적 호기심을 잘 발달시키지만 교과서는 지적 호기심을 잘 발달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공부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잘 알려 주어야 하는데, 교과서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나 교사는 자녀에게 소설책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린이가 만화책과 같은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왜냐하면 재미있는 책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동기부여를 잘 해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어린이가 성공한다. 쇠는 충분히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같다. 믿고 기다리면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지혜이다.